

20대 성인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김 대 희

김 명 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20대 성인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온라인으로 만 20대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회불안 사이에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줄 때,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 모두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여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국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뿐 아니라 20대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의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20대 성인에게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적용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과, 그 사회불안 감소에 관한 심리학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 실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와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0)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035, E-mail: klb2000@jj.ac.kr

한국사회에서는 고학력화, 취업난 등으로 청년의 사회적 진출이 늦어지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비해 늦은 나이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이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데, 서구권에서는 관련된 청년의 발달 과업 지연을 후기 산업사회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구조 변화를 따라 청년이 자기 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경향에 주목하며 이들이 겪는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Arnett, 2000).

이에 제안된 발달 단계인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청소년기와 다르게 물리적 및 경제적 독립을 대표적인 표지라고 여겼던 성인기와도 다른 개념이다. Arnett(2004)은 이 시기의 특징으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하며,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경험들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대상자가 확장되어, 최근 만 29세까지 진행되었다(Arnett, Žukauskienė & Sugimura, 2014).

한국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자녀들은 이 시기를 독립하는 시기로 인식하기보다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 아래 미래를 계획하고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여긴다. 그러나 부모에게서의 경제적, 물리적 독립을 서구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독립도 덜 인식한다고 보고되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강주현(2017)은 대학생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의 심리적 독립을 경제적 독립, 의사결정에서의 독립, 부모의 기대에서의 독립, 부모의

간섭 및 통제에서의 독립과 같은 다양한 양태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취 결과를 자신의 결과로 동일시하고 과도한 기대를 자녀에게 부여하는 한국문화의 영향 때문에,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내면화될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죄책감(guilty)과 구별되는 수치심(shame)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자주 경험되는 정서로 인식하였다. 죄책감은 구체적 행동에 부정적 평가를 내려 반성과 속죄를 유발시키지만, 수치심은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적인 심상으로 일반화하여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Lewis, 1971; 정다운, 2019).

이처럼 마음속에 형성된 수치심은 성격특성으로 굳어져 관련 사건이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만성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Tangney & Dearing, 2003), 이 현상을 내면화라고 한다. 이 수치심 발현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수 있으나 역기능적이기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용태, 2010). 그러므로 집단주의가 다소 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이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소영, 주은선, 2019; Dumont, 1970; Miller & Bersoff, 1992; Tracy & Tangney, 2012).

결국 한국의 아동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수치심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성인 진입기에 놓인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받기 쉽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성인 진입기의 자녀들이 자기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인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으로서의 자녀가 아닌, 성인 진입기 자녀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김하얀, 신혜원, 2018; 이승은, 2018; 한아름, 2018)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 후 이전과 다른 확장된 사회적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면에서 사회불안과 관련한 연구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정소현, 양난미, 2018). 그러나 대학 진학이나 대학 생활 이외에도 다양한 성인 진입기의 모습이 가능하므로, 청년기 초기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 중 이규원(2019)의 연구는 20대 중후반이 초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적어서(전체 연구대상 361명 중 24-30세가 46명으로 13%에 불과했음), 20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만 20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요구대로 자녀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심리적 규제다. 행동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여 압박을 주거나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주어 자녀의 표현을 무시하는 양육 태도다(권유미, 2019).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나 양육자가 비교적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라 정의되며(이혜림, 2009),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인식하는 방식보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강금주, 2015).

Shaefer(1959)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는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의 네 가지 유형 중 ‘애정-통제’ 혹은 ‘거부-통제’ 양육태도에 속한다. 애정-통제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만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며(정은지, 2013), 거부-통제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가 애정표현도 하지 않은 채 자녀의 행동과 반응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체벌을 가하며 반복적인 요구를 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김신정, 김영희, 2007).

김지연(2010)에 의하면 애정-통제 양육태도와 거부-통제 양육태도는 ‘과보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 및 통제하여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정은지, 2013). 한국의 과보호는 주로 애정-통제 양육태도의 특성을 가지고 서구의 과보호는 거부-통제 양육태도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는데(김지연, 2010), 부모 양육태도 경향에서 차이가 있을 뿐(박아칭, 1998) 한국이 서구와 공유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강시은, 이재림, 2017; Schiffrin, Liss, Miles-McLean, Geary, Erchull, & Tashner, 2014).

애정-통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희생을 아끼지 않으나 과도하게 자녀를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고 여러 적응상의 문제를 겪는다(김소라, 2003; 정은지, 2013). 또한 거부-통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일관성 없이 자녀를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이현미, 2016). 이처럼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자녀의 우울, 불안,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지연, 오경자, 2011; Kwon, Yoo, & Bingham, 2016).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비교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의 사회불안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Schreier, Heinrichs, Alden, Rapee, Hofmann, Chen, Oh, & Bögels, 2010).

사회불안은 APA(2013)와 DSM-5(2013)에 의하면 타인이 관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보이는 증상이다. 타인에게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최명희(2018)는 사회불안과 사회불안장애 관계를 양적인 차이로 가정하였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불안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으나, 증상이 과도해지면 사회불안장애로 명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불안이라는 용어가 사회불안장애를 판단하는 임상적 경우와 증상의 정도가 달한 경우까지 포괄함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하얀, 신헌원, 2018; 이승은, 2018; 한아름,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뚜렷한 수치심 경험에서 비롯되며 애착 관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남기숙, 2008; 정다운, 2019; Cook, 1991). 애정 철회와 같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아 온 자녀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고(김하얀, 신헌원, 2018),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부적절감(sense of inadequacy)을 느낀다. 이 경험은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현순, 2019; 조유나, 2018; 최인선, 최한나, 2013; Scanlon & Epkins, 2015). 부모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시선이 자동적으로 내면화되어서 자신의 개인적 및 사회적 삶에 만성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Zhong, Li, & Qian, 2003).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통제하는 양육방식을 대표하는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 현상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의 발생과 이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심리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헬리콥터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어려워하며, 어렸을 때부터 통제를 받아왔기에 사회적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쉽다(정송희, 2018). 한편, 자녀의 독립에 크게 불안을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시킨다(Barber & Harmon, 2002).

Vandana와 Shweta(2013)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수치심을 경험하고 사회불안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감정을 느껴야 할 때마다 수치심을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하거나 느끼길 어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민경, 2008). 기효정과 홍혜영(2016)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수치심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기도 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 자체를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표현하고 싶은 정서를 억압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발생한다.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안소연(2015)은 대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많이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소선(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표현을 억누르는 태도는 자녀의 정서 표현을 억압하고 지연시키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현순(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화되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20대 자녀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20대 자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에서 만 29세 사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360부였으나 350부만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과기된 10부 중 5부는 설문 참여자의 실수로 중복 제출되었으므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5부는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설문이 거절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020년 5월, 약 한 달 간 온라인 설문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연구 목적과 자발적 참여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내용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척도 순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 설문 후 보상을 진행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체	350	100
성별	남	44
	여	56
연령	20-23세	52
	24-26세	31.1
	27-29세	17

개인정보(성별, 나이, 연락처)는 비밀이 보장되었으며, 보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 후 파기되었다. 설문지는 구글 폼(Google Form)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항목의 연구설문조사 게시판과 국내 검색 사이트가 제공하는 플랫폼(카페, 밴드)을 중심으로 배포되었다. 본 연구는 소속된 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받았다. 해당 승인번호는 jjIRB-200515-HR-2020-0504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으로 사용된 척도 내 문항의 총 개수는 71개 문항인데, 이중 반응 편향성을 막기 위해 포함된 가짜 문항(filler items)인 6개 문항을 제외한 65개 문항을 실제 분석에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를 SPSS Statistics 26과 AMOS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규분포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우선 측정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이후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살펴본 후,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각 구조모형을 검토한 뒤, 부트스트랩 검증을 이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AMOS는 각 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이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2012)의 자기보고형 부모심리통제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최명진과 김은정(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지각을 보고하는 척도로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가 많음을 뜻한다. 최소선(2016)이 보고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1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려 Cook(1988)이 개발한 ISS(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반응 편향성을 막기 위한 Resenberg 자존감 척도 6문항“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이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치심을 의미한다. 이현순(201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은 이혜민(2018)이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 정리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원래 King과 Emmons(1990)이 개발하고 최혜연과 민경환(2007)이 변안한 척도가 있었으나, 문화적 제한점을 보완할 새로운 척도의 필요성이 있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기존의 척도보다 정서억제를 더 많이 설명하므로 우리나라의 정서적 특성을 더 잘 설명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혜민(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2였다.

사회불안

Mattick과 Clarke(1988)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IAS(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와 사회공포증 척도 SPS(Social Phobia Scale)를 Carleton, Collimore, Asmundson, McCabe, Rowa, Antony(2009)가 단축형으로 제작, 이후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2013)가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소정(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왜도는 최소 .17에서 최대 .97이었으며, 첨도는 최소 -.53에서 최대 .35였다. 정규성 가정의 위반 기준은 왜도 절대값이 3, 첨도 절대값이 8로, 이 기준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부모의 심리적 통제	1			
내면화된 수치심	.49**	1		
정서표현 양가성	.37**	.57**	1	
사회불안	.46**	.65**	.61**	1
M	1.91	2.08	2.68	2.25
SD	.56	.77	.88	.79
왜도	.44	.97	.17	.54
첨도	-.11	.35	-.53	.046

** $p < .01$

을 초과하면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Kline, 2005). 정규성 가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 모형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상관($r=.49, p<.01$),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정적상관($r=.37, p<.01$), 사회불안과도 정적상관($r=.46, p<.01$)이 있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상관($r=.57, p<.01$), 사회불안과 정적상관($r=.65, p<.01$),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회불안과 정적상관($r=.61, p<.01$)이 있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기반 접근법(content-based approach)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시행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구성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중 χ^2 는 자료의 크기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되므로 CFI, TLI, NFI, RMSEA과 같은 지수를 참고하였다. CFI, TLI, N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성태제, 2019). 따라서 본 측정모형의 수준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측정변인들이 실제로 해당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고, 각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61부터 .92까지 나타났다($p<.001$). 수렴타당도는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수준(Wang & Wang, 2012)이며 .70 이상일 때 매우 우수한 수준(Kline, 2016)으로 평가되므로, 수렴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변별타당도는 잠재변인 간 상관의 절댓값이 .90을 넘지 않을 때 적절하다고 평가되는데(Kline, 2016), 본 연구에서는 .45부터 .74로 나타나 변별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잠재변인들이 각 측정변인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림 1에 자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연구 모형(부분 매개)과 경쟁 모형(완전 매개: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직접 경로 삭제)을 비교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형을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고, 적합도 지수를 측정하였다. 관련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NFI를 비롯한 TLI, CFI,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측정 모형	298.94***	98	.91	.93	.94	.077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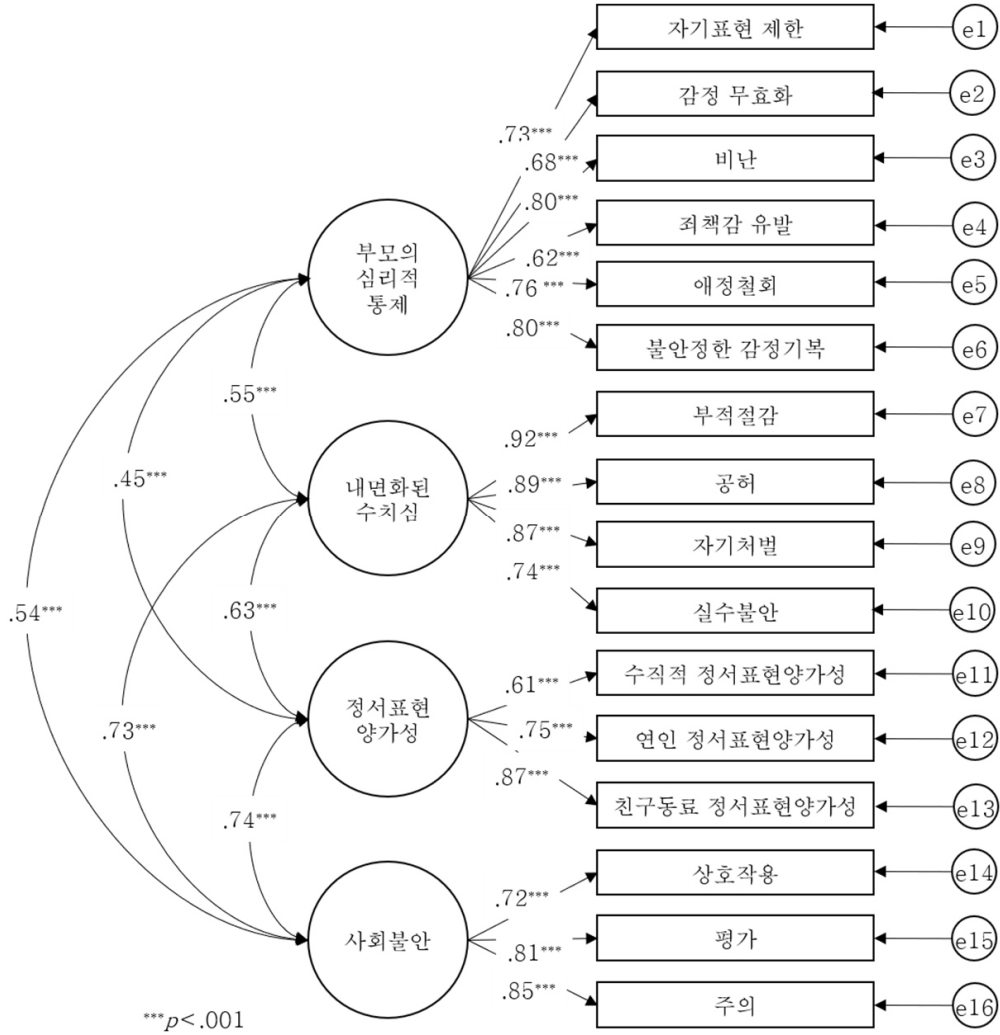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사회불안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연구 모형	298.94***	98	.91	.93	.94	.077
경쟁 모형	305.07***	99	.91	.93	.94	.07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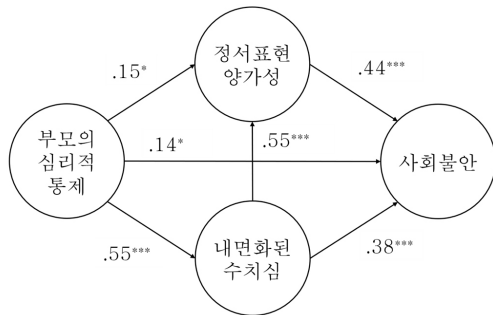
RMSEA 적합도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동일하게 나왔으며 모두 좋은 적합도 조건에 부합하였다(성태제, 2019).

χ^2 차이 검증은 두 모형이 포함관계(nested relation)에 있을 때 실시하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는 χ^2 차이 검증이 적절하다. 모형 비교에서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χ^2 값이 충분히 큰 감소(임계치 3.84)를 보이면,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이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차이는 $\Delta\chi^2=6.13(\Delta df=1, p<.001)$ 로써 3.84보다 크므로 두 모형 간 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택하기

때문에 연구모형(부모의 심리적 통제-사회불안 부분매개모형)을 최종 선택했다(성태제, 2019).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이후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여 최종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5,000번 표집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20~.41),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5~.3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31~.50)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 $p<.05$ *** $p<.001$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사회불안 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

표 5.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부모의 심리적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81	.55	.088	9.16***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46	.55	.064	7.28***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표현 양가성	.19	.15	.082	2.34*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35	.38	.061	5.62***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48	.44	.080	5.93***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19	.14	.075	2.48*

* $p<.05$ *** $p<.001$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 효과

경로	직접	간접	총
	효과	효과	효과
	(95% 신뢰구간)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54***		.54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55**		.55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44**		.44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15*	.30*** (.20~.41)	.45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38***	.24*** (.15~.38)	.62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14*	.40*** (.31~.50)	.54

* $p < .05$ ** $p < .01$ *** $p < .001$

났으므로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텀변수를 이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 경로

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 경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 별로 간접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특정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였다(Chan, 2007). 팬텀변수는 모형 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변환 모형을 통해 매개변수 각각의 특정 간접효과를 bootstrapping으로 도출한다(허준, 2013). 그러나 AMOS에서는 간접효과의 표준화 계수가 계산

표 7.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경로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28***	.15	.43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09*	.01	.20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	.18***	.10	.30

* $p < .05$ *** $p < .001$

이 되지 않으므로(배병렬, 2017)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5~.43),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01~.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0~.30)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현상을 탐색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20대의 사회불안의 관계를 검증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나타나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겪는 20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불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타나는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그리고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요 변인(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과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변인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는 다양한 집단에서 보고된 선행연구(김하얀, 신혜원, 2018; 이규원, 2019; 이승은, 2018; 한아름, 2018)와 일치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20대 전반의 사회불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기효정, 홍혜영, 2016; 안소연, 2015; 최소선, 2016; Vandana & Shweta, 2013). 이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20대 성인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내면화(내면화된 수치심)하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억압하거나 미루는 경향(정서표현 양가성)을 보일 수 있음이 추론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한 20대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수치심을

자주 느낌으로써 다른 정서보다 쉽게 내면화하여 사회불안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자체를 꺼려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수치심이 높아지고, 높아진 수치심이 정서를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부모가 20대 자녀를 과잉통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부여된 소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수치심을 자신의 주된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거의 단일한 감정으로 내면을 채운 자녀는 경험하게 되는 여러 정서를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방식을 택하여서(이현순, 2019) 최종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성인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연령을 설문한 선행연구(이규원, 2019)에서는 대학생만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표집되었던 20대 중후반의 수가 20대 초반에 비해 적었다(361명 중 24세에서 30세가 46명으로 13%). 그러나 본 연구(350명 중 만 20에서 23세가 181명으로 52%, 만 24에서 26세가 109명으로 31.1%, 만 27에서 29세가 60명으로 17%)는 연령을 기준으로 표집되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표본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연령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거나 연령을 밝힌 외국의 연구(Arnett, Žukauskienė, & Sugimura, 2014; Cui, Graber, Metz, & Darling, 2016; Manzeske, & Stright, 2009; Smout, Lazarus, & Hudson, 2020)와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 방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관계를 매개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을 밝힌 선행연구는 중학생을 대상(기효정, 홍혜영, 2016)으로 하였거나 청소년들을 대상(Vandana & Shweta, 2013)으로 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국내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 20대 성인에서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타난 20대의 사회불안을 낮추려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비롯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수치심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인지왜곡이나, 내적 감정에 대한 지각과 명명(naming) 등 감정처리에 관련된 인지과정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회불안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것 같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가 된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이현순, 2019)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변인과의 관련성이 검증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동시에 매개

효과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정서 표현을 억눌러왔던 상황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정서 표현을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표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내담자의 기저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20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수치심과 같은 부적절감을 환경에 대한 대처 반응으로 삼도록 유발시키며, 이러한 수치심은 정서를 억누르고 표현을 꺼리게 만들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들이었을 뿐, 이 변인들을 통합하여 경로를 분석하진 않았다. 본 연구를 기초해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20대 성인의 경우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수치심이 커지고, 그 결과 내면화된 감정에 대한 정서표현의 어려워져 사회불안이 더 커진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정소현과 양난미(2018)가 연구한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도 의미 있다. 즉 정소현과 양난미(2018)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민감성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는 애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상대의 거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향은 주된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거부민감성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소현과 양난미(2018)는 자기침묵과 자기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원래 자기침묵은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인식 명확성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본 연구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침묵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자기인식명확성과 부적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검증된 본 연구 결과는 정소현과 양난미(2018)의 연구와 매우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에 관하여 각각 묻지 못하지 못하고 함께 설문을 진행하였기에 부모의 어떤 면이 20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연구하지 못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설문에 응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부모의 대략적인 상을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게 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연구를 위해 부와 모로 나누어 설문을 따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방법론 면에서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집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연구대상이 처한 맥락에 따른 경험을 입체적으로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은정(2011)의 연구와 같이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에 관한 특정 세대의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복 검증이나 종단연구(Williams, & Ciarrochi, 2020)를 시도할 수 있다.

넷째, 부모가 아닌 양육자 및 보호자에게서 길러진 20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부모라는 명칭으로 양육자의 역할이 대표되는 연구 주제는 숙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속의 연구 대상을 표집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되었던,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잠재적 연구대상자의 연령층(갱거루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갱거루족이 30대 초·중반까지 확장된 현 사회 현상과 근거로 하여(오호영,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30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rnett과 Žukauskienė, Sugimura(2014)는 성인 진입기를 만 29세까지로 설정 및 연구하고 논의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Luyckx, 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와 Berzonsky (2007)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현상을 성인 진입기 자녀를 중심으로 다소 한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목한 현상이 20대의 발달 과업으로 소급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좀 더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금주 (2015).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관계만족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시은, 이재림 (2017). 한국판 헬리콥터 부모 역할 지각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타당화: 30대 초반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3-25.
- 강주현 (2017).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유미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효정, 홍혜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4(3), 85-99.
-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2014).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불안통제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 (2013).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와 한국판 사회 공포증 척도(K-SPS)의 단축형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3(3), 511-535.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양은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2010). 상담일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 김윤희 (2018).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개효능감, 경험회피를 매개변인으로.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 (Emerging Adulthood). 사회와이론, 19, 329-372.
- 김지연 (2010).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의 적응,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남녀 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오경자(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하얀, 심혜원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 1-29.
-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하연 (2017).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주은선 (2019). 한국적 정서표현의 특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25-52.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 배병렬 (2017). AMOS 24.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출판사.
- 배효숙, 홍혜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8), 27-54.
- 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거부적 부모 양육 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37-851.
- 성태제 (2019).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소연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호영 (2017). 켄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패널 워킹페이퍼, 7. 한국노동패널조사.
- 윤애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 성

- 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원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타인에 의한 타당화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5-30.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예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현미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유형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순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 (2009).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민 (2017).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윤, 이민규 (2017).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811-832.
- 정다운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이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신체화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 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현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 정송희 (2018). 헬리콥터 부모양육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지 (201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생활 적응: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희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나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 김은정 (2018). 심리적 통제척도(PCS-YSR)의 타당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51-69.
- 최명희 (2018).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소선 (2016).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99-2815.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아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철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출판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Žukauskienė, R., & Sugimura, K. (2014). The new life stage of emerging adulthood at ages 18-29 year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The Lancet Psychiatry*, 1(7), 569-576.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5-52. Washington, DC: APA.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 Carleton, R. N., Collimore, K. C., Asmundson, G. J. G., McCabe, R. E., Rowa, K., & Antony, M. M. (2009). Refining and validating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Depression and Anxiety*, 26, 71-81.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ui, M., Graber, J. A., Metz, A., & Darling, C. A. (2016). Parental indulgence, self-regulation, and young adult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Journal of Family Studies*, 25(3), 233-249.
- Dumont, L. (1970). *Homo hierarchicu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
-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Fourth Ed.).
- Kwon, K. A., Yoo, G., & Bingham, G. E. (2016). Helicopter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Support or barrier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and Family Studies*, 25(1), 136-145.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 Manzeske, D. P., & Stright, A. D. (2009). Parenting styles and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4), 22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iller, J. G., & Bersoff, D. M. (1992). Culture and moral judg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54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canlon, N. M., & Epkins, C. C. (2015). Aspects of mothers' parenting: Independent and specific relations to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anxiety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2), 249-263.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chiffi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 Schreier, S. S., Heinrichs, N., Alden, L., Rapee, R. M., Hofmann, S. G., Chen, J., Oh, K., & Bögels, S. (2010). Social anxiety and social norm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ountries. *Depression and Anxiety*, 27(12), 1128-1134.
- Smout, A., Lazarus, R. S., & Hudson, J. L.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Anxiety in Emerging Adulth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4(1), 182-195.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3).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 Tracy, J. L., & Tangney, J. P. (2012). Self-conscious emotion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446-478. New York: Guilford Press
- Vandana Kapur, & Shweta Rai. (2013). The Experience of Shame in Social Phobia.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8(2), 299-311.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and applications*. Wiley
- Williams, K. E., & Ciarrochi, J. (2020).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values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2), 541-558.
- Zhong J, Li B, Qian M. (2003). Shame, pernalit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and mental health: an original structural
model research in Chinese. *Chinese Mental
Health Journal*, 17, 31-35.

논문 투고일 : 2020. 11. 04

1차 심사일 : 2020. 11. 09

게재 확정일 : 2021. 01. 15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ocial Anxiety of Young Adults in Twenties: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s Mediators

Dae-hi Kim

Myung-shig Kim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ify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young adults in twenties and their social anxiet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model. The onlin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50 young adults in twenties to assess the four major variable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ternalized sham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In correlation analysi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and this study 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vealing the path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social anxiety by mediator such as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inally,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social anxiety partial mediator model was suppor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gher the level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ubsequently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anxiety in twentie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ternalized sham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l anxiety*